

■ 정책동향

중전기기 생산기술 개발사업 성과 발표회 개최

통상산업부는 신경제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중전기기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난 '91년부터 5년간 800억원을 중전기기분야 생산기술개발에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제조업체의 기술자생력을 배양시켜 시장개방에 따른 무한경쟁속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대응능력을 길러주는 한편, 국내 최대 수요처인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값싸고 질좋은 전력기자재 및 설비를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 기술개발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의 지원을 받아 5년동안 186개 과제에 800억원의 개발자금을 지원하여 연구개발의 불모지에 가까웠던 중전기기분야의 경쟁력 확보 및 연구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 하였으며, '97년 상반기 기준으로 개발품 활용실적을 보면 약 7천5백억원 정도의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 효과가 있으며, 2001년이 되면 약 1조원의 개발효과가 전망되고 있다. 또한 완료과제 158건중 현재 활용중인 과제는 85건(54%)이며 활용예정 23건, 실시지연 25건을 포함할 경우에는 133건(88%)이 활용되어 전체 생산기술개발사업이 성공적인 것이라 평가할 수 있으며, 현재 특허 출원중인 것이 100개,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 신청중인 것이 30개로 향후 중전기기 부문에 대한 산업재산권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완료된 158개 과제중 기술개발 과급효과 등이 우수한 발전소용 대용량 GTO(Gate turn off) 인버터 개발과제 등 6개 과제에 대한 연구성과

종합발표회와 우수 중전기기 제품전시회가 1997. 10. 24 고창(전북) 한전 전력연구원 765KV 실증시험장에서 개최 되었다. 이날 종합발표회에서는 개발성과가 좋아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에 기여한 우수 중전기기 개발업체 및 유공자 15명에 대한 시상식도 있었다.

중전기기 기술개발사업 지원에 대한 활용효과를 보면 초고압 부문의 기술개발과 송전전압 격상에 따른 765KV급 송전 및 변전기기의 기자재 및 전력용 반도체개발의 시발점이 되었고, 에너지 절약 기기의 기술개발 및 중전기기 부문에서 첨단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초전도 기술의 응용, 전력용 반도체 및 인버터 등의 설계기술과 제조기술 개발의 초석이 되었다.

산업구조 측면에서의 성과로는 국내 중전기기 업체들의 국제 경쟁력이 제고되었으며 그 결과 765KV급의 기술능력 및 제조능력, 납품실적을 갖게 되어 국제입찰 자격 등이 부여되었으며, 전문 기술인력의 기술력 배양과 신뢰성이 확보되어 전문업체가 학계 및 연구기관의 우수인력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함에 따라 기술력을 습득하게 되고 수요자도 신뢰성을 갖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지원 및 기술을 연구소 및 학계가 공동 수행함에 따라 업체의 기술수준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핵심기술 분야 및 설계기술, 소재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의 성공여부 부

담을 줄이게 되었으므로 업계에서는 적극적인 기술개발에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생산기술개발사업은 우리나라 중전기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효시으로써 중전기 분야의 기술개발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으며, 향후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무한경쟁 체제 돌입에 대비한 중전기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중전기기업을 세계 제 8위권으로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생산기술 개발사업 추진이 절실히 요구된다.

통상산업부는 기술력 확보가 경제발전의 주춧돌

이라는 인식하에 앞으로도 중전기 분야 중소기업 기술력 강화에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며 본 사업의 개발성과에 따라 징수되는 기술료를 중전기 산업발전을 위한 민간기금으로 한국전기공업진흥회에 조성하여 중전기 기술개발 사업에 지원할 방침이다.

'97. 10월 현재 조성된 43억원을 금년안으로 중전기 업계에 지원할 계획이며 기술료 징수 최종년도인 2006년까지는 총 400억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도별 지원실적

구 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계
지 원 금 액	57	168	147	175	124	81	48	800억원
지 원 과 제	88	16	6	43	33	—	—	186개 과제
완 료 과 제	—	4	48	6	53	38	9	158개 과제

분야별 지원내역

구분	배 전 자동화	전 기 재료	화 학 공 정	배 전 설 비	전 력 전 자	공 장 제 어	발 전 제 어	전 력 합 리 화	산 업 기 계	송 전 설 비	전 기 기 기	전 력 제 어	반 도 체 소 자	변 전 설 비	계
과제수	5	6	7	28	14	6	8	13	21	18	13	21	9	17	186
(비율%)	2.7	3.2	3.8	15.1	7.5	3.2	4.3	7.0	11.3	9.7	7.0	11.3	4.8	9.1	100

'98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 확정

정부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유통·입지·환경 등 국내 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내년도 산업기반기금으로 3,7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98년도 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통산부는 내년도 산업기반기금을 통한 융자 지원액을 올해보다 15.2% 늘려 3,700억원으로 책정하고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유통합리화, 환경친화적 산업기반 조성, 산업단지 활성화, 제조업 지원기반 구축 등 5개 분야에 걸쳐 중점 지원키로 했다.

이중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 분야는 경쟁력 약화 산업의 노후시설 개체, 시설자동화 및 제품 개발, 신기술의 보급확대를 위해 총 1,230억원을 지원하고 유통합리화 분야는 유통정보화·표준화·공동화 등 유통인프라 구축에 8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조성 분야는 국내 기업의

청정생산설비, 환경설비 투자를 촉진하고 국내 환경설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530억원을 지원하며 산업단지 활성화 분야의 경우 조건부·무등록공장 및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880억원을 지원한다.

제조업지원 기반구축 분야는 전자상거래(CALS) 체계 구축 및 엔지니어링·영상등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총 21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공업기반기술사업 우수과제 選定

통상산업부는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추진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과제중 기술의 난이도,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무역역조개선 등을 평가해 추진실적이 뛰어난 12개 우수기술개발과제를 선정, 추가자금 지원 및 해당과제 연구 책임자에 대한 단기 해외연수 혜택 부여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이들 과제의 추진기업은 기존의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 이외에 최고 30억원(연리 6%, 3년거치 5년분할상환)까지의 추가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당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단기해외연수 혜택도 받게 된다.

통산부는 이번에 우수과제로 선정된 12건의 과

제들은 총 66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투입, 1-3년간의 단기간에 개발한 과제들로 사업화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수입대체 850억원, 수출증대 465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지난 '8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은 국내산업의 공통적 핵심애로기술, 국산화가 시급한 기술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기반기술에 대해 무담보 무이자로 총 사업비의 3분의 2까지 지원하며 기술적 및 상업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있을 경우 최장 3년, 최대 9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輸入 전기용품 原產地 표시 강화

앞으로 수입 전기용품은 원산국의 제조지를 시

·도 단위까지 표시하고 수입판매업체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명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산업부는 최근 ‘전기용품의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통상부는 전기용품의 외국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외산을 불문하고 제품에 제조업체명 외에 제조공장 소재지(국가명과 시·도까지)를 표시토록 하고 수입 전기용품인 경우 수입 판매 업체명과 주소·전화번호도 병기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제조공장 소재지의 표시는 제조업체명 뒤에 괄

호를 사용해 표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제조공장 소재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 전기용품으로 전열기구류, 전동력용용기계류, 광원용 용기계기구류, 전자용용기구류를 정했다.

통상부는 이와 함께 수입 전기용품에 대해 ‘원산지 제조국명 및 제조자명’을 표시토록한 전기용품 표시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삭제하는 대신 원산지 표시를 대외무역법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표시 기준을 일원화 할 계획이다.

기술신용보증 특례지원 확대

중소기업청에서는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술신용보증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의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 “기술신용보증특례지원 추천” 요령을 개정기로 하였다.

현행 “기술신용보증특례지원 추천” 제도는 중소기업청장이 추천하는 우수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6억원 이하의 운전자금 신청시에는 신용도 등의 심사를 생략 간이심사로 대체하고, 6억원 초과 신청시는 정식심사항목중 기술개발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표상의 배점(25점)을 만점 처리하여 보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우수기술·신기술 보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NT, EM마크, 100PPM, ISO 9000 인증 등을 획득한 업체인 기업,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유망선진 중소기업, 매출액대비 연구개발투자비가 1%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는 우선 추천제도를 운영하

여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추천하고 있으며 여타 우수기술 보유업체의 경우는 신청이 있을 경우 현장심사를 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추천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우선추천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에 의한 개발성공품목,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건설신기술, 수출액이 매출액 대비의 50% 이상인 기업도 동 우선추천대상 범위에 포함시키고

중소기업청장의 추천분에 대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률을 제고하고 기술신용보증 특례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심사 및 우선추천시 신청기업에 대한 간이신용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 시안을 마련하여 관련기관간 협의·의견수렴후 최종 확정하여 금년 11월중 시행할 계획이다.